

多鈕細文鏡과 異形靑銅器으로 본 細形銅劍文化의 地域의盛衰

미야자토 오사무(와세다대학교)

역: 무라마츠 요스케

I. 머리말

기원전 천년기의 한반도는 초기 농경 사회가 확대되어 「조선」이나 「한」 등의 지역 세력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다. 대상이 되는 고고 자료는 토기·석기·청동기·취락·묘제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사회의 변화가 다양하게 그려져 왔다. 청동기, 특히 세형동검문화는 「권력」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해 왔지만 필자는 세형동검문화의 형성과 전개를 검토하면서¹ 청동기를 통해 지역 세력의 발현·대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세형동검문화의 후반 단계에 생긴 지역적 성쇠를 청동기 제작기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多鈕細文鏡, 異形靑銅器 및 竿頭鈴의 변천을 검토하고, 계속해서 시공간적 추이를 제작기술의 관점에서 파악한 후에 마지막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II. 다뉴세문경의 변천

1. 분류의 개요

다뉴세문경의 분류는 문양의 최소단위에 주목한 「單位文樣分類法」²으로 대별한 「2區3區式分類法」³이 있다. 甲元⁴ 이후의 연구는 모두 「2구·3구식 분류법」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결한 분류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2구·3구식 분류법」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간략히 말하면 형식설정에 있어서 문양이 유사한 자료가 다른 형식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양을 가지는 자료가 같은 형식으로 묶이는 난점이 있고 방법에 있어서는 형식을 共伴關係에 우선시켜 다뉴경끼리의 공반관계를 전제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다. 자세한 것은 別稿에서 말하지만 필자는 外區문양을 中心으로 문양구성이나 직경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새롭게 다뉴세문경의 분류를 시도했다. 이하에 분류와 편년의 개요를 제시하겠다.

분류의 기준은 단위문양, 직경, 구획면적이다. 단위문양은 宇野⁵의 案을 再整理해 그림 1과 같이 정리했다. 새롭게 내구구획유형(內區區劃類型)을 추가하였다. 직경은 全榮來⁶의 기준을 기초로 超大型, 大型, 中型, 小型으로 구분하였다(그림 2). 구획면적은 단위문양을 充填하는 구획의 크기로 구분하였다(그림 3). 외구문양을 중심으로 이상의 속성의 상관을 보면 세문경은 A식, B식, C식, D식의 4형식으로 구분된다. 이하에 각 형식별 개요를 제시한다.

細文鏡 A식은 粗文鏡의 많은 요소를 계승한 鏡群으로 외구의 對向三角文A를 공통항목으로 한다. 구획의 복잡화, 직경의 대형화, 구획면적의 소구획화라고 하는 변화를 내포하여 변화 과정의 각 단계가 AI식, AII식, AIIIa·b식, AIVa·b식으로서 세분된다.

細文鏡B식은 외구에 구획대가 없는 대향삼각문B, 間區에 충전문 N원권대를 복수 반복한 구성이다. 직경의 대형화, 구획 면적의 소구획화라고 하는 변화를 내포하고 변화 과정의 각 단계가 BI식, BII식으로 세분된다.

細文鏡C식은 10cm전후의 직경을 중심요소로 하고, 3뉴, 대향삼각문C라고 하는 2개의 속성이 조합된다. 내구는 他型式과 異形靑銅器의 모티프가 이식되었다. 내구구획의 차이에 의해 CI식, CII식, CIII식, CIV식, CV식으로 세분되지만 각 세분형식은 같다.

細文鏡D식은 외구에 구획대가 없는 대향삼각문D를 배치하고 間區·내구는 세문경A식과 비슷하다. 세문경A식의 외구를 변형하여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양구성은 다양하게 세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유의한 세분은 기대하기 힘들다.

2. 변천에 대하여

앞 절의 형식 가운데 세문경A식은 세문경의 전 기간에 존재하고 있어 편년의 기준이 된다. 세문경A식의 細分諸型式은 그림4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구획의 복잡화→대형화→소구획화라고 하는 세문경A식의 변화내용은 다른 형식과 형식학적 관련성을 검토하는 소재가 된다. 세문경BI식→BII식의 소구획화, 세문경C식 및 D식의 구획면적과 내구구획법에서는 세문경A식과의 연동이 확인된다. 부장시의 공반관계와 함께 형식조성의 관점에서 다시 세문경전체의 변천을 보면 크게 3개의 단계 설정이 가능하다. 조문경에서 설정했던 I·II단계⁷⁾에 이어서 다뉴경III·IV·V단계로 한다. 다뉴경III단계는 세문경의 형성기, 다뉴경IV단계는 분화가 진행되는 시기로, 세문경V기는 명확하게 분리된 제 형식이 모두 나오고 세문경의 체계가 정비된 시기이다.

각 단계의 분포상을 보면, 다뉴경V단계에 흥미로운 현상이 보인다(圖5). 세문경의 형식조열에 있어서 대형경으로 차이화 되고, 이형청동기와 같이 부장된 세문경A식의 분포가 V단계가 되면 서부와 중서부·서남부라는 두 개의 큰 청동기분포권에 한정된다. 그리고 다뉴세문경은 V단계를 마지막으로 갑자기 소멸해 버린다.

III. 이형청동기의 추이

1. 이형청동기의 개요

「精緻한 문양을 가지는 용도불명의 이형청동기」⁸⁾, 「정치한 기하문양을 가지는 異樣한 형태의 청동기」⁽⁹⁾라고 표현된 일군이 「이형청동기」이다. 李健茂⁽¹⁰⁾는 「이형청동기 중에서 대체적으로 같은 계통의 단위 문양을 가지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지니면서 의례에서 사용된다고 보이는 일체의 도구」(필자역)를 「의기」라고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劍把形銅器, 防牌形銅器, 喇叭形銅器, 肩甲形銅器, 円形有文銅器, 八珠鈴, 雙頭鈴, 組合式雙頭鈴, 柄付銅鈴, 竿頭鈴, 錨形銅鈴, 蛭形銅鈴등이 있다. 이형청동기는 토제 거푸집이나 凹文등의 제작기술에 입각한 어떤 종류의 기술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의례에 관련한 도구로 이해한다면 제작기법의 공통성을 넘어 円蓋形銅器, 小銅鐸, 多鈕鏡을 추가해야한다. 앞 장에서 검토한 다뉴경을 제외한 이형 청동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1. 平壤 場里1号支石墓¹¹:小銅鐸2, 曲芸銅裝飾1
2. 北青 土城里2号住居址¹²:小銅鐸1
3. 羅津 草島I-4地点¹³:小銅鐸1
4. 金野 金野邑¹⁴:小銅鐸鑄型1
5. 大田 槐亭洞¹⁵:劍把形銅器3, 防牌形銅器1, 小銅鐸2, 円蓋形銅器1, 多鈕鏡2
6. 礼山 東西里¹⁶:劍把形銅器3, 喇叭形銅器2, 円蓋形銅器1, 多鈕鏡5
7. 牙山 南城里¹⁷:劍把形銅器3, 防牌形銅器1, 多鈕鏡2
8. 益山 多松里¹⁸:円蓋形銅器2, 多鈕鏡1
9. 伝大田¹⁹:防牌形銅器(農耕文青銅器)1
10. 伝慶州²⁰:肩甲形銅器1
11. 伝益山²¹:円形有文銅器1
12. 和順大谷里²²:八珠鈴2, 双頭鈴1, 多鈕鏡2
13. 伝論山²³:八珠鈴2, 竿頭鈴2, 双頭鈴2, 組合式双頭鈴1, 多鈕鏡1
14. 咸平草浦里²⁴:竿頭鈴2, 双頭鈴1, 組合式双頭鈴1, 柄付銅鈴1, 多鈕鏡3
15. 伝徳山²⁵:八珠鈴2, 竿頭鈴2, 双頭鈴2, 組合式双頭鈴1
16. 伝尚州²⁶:八珠鈴2, 竿頭鈴2, 双頭鈴1, 組合式双頭鈴1
17. 扶餘合松里²⁷:小銅鐸2, 円蓋形銅器1, 多鈕鏡1
18. 慶州入室里²⁸:竿頭鈴2, 錨形銅鈴1, 柄付銅鈴1, 小銅鐸1, 多鈕鏡1
19. 月城竹東里²⁹:竿頭鈴2
20. 咸州朝陽里³⁰:竿頭鈴1
21. 伝洛東江³¹:竿頭鈴2
22. 大邸新川洞³²:竿頭鈴2
23. 慶州九政洞³³:蚕形銅鈴2, 小銅鐸1
24. 大邸坪里洞³⁴:小銅鐸4
25. 平壤付近³⁵:小銅鐸鑄型1
26. 大同上里³⁶:小銅鐸3
27. 平壤貞栢里97号墓³⁷:蚕形銅鈴1
28. 康津牛頭里³⁸:蚕形銅鈴1
29. 北青下細洞里³⁹:鈴部片1
30. 国立博物館M296⁴⁰:竿頭鈴2
31. 伝 慶北⁴¹:竿頭鈴片1

이형청동기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岡内는 제작기술의 상세한 관찰에 근거하여 문양의 정밀도나 간두령 형상의 시간 차이를 찾아내어 이형청동기 세트를 배열하였다⁴². 李健茂는 의기연구로서 이형청동기를 검토하여 세트관계에 따라 A군·B군·C군의 3군을 설정하였다⁴³. 後藤은 팔주령의 복원제작을 통해 이형청동기의 시기상을 제시하여 세트관계의 타당성을 재확인하였다⁴⁴. 그 외에 이형청동기를 최상위등급의 부장품이라고 보고 祭儀圈의 도출에 이용한 연구도 있다⁴⁵. 모든 연구가 이형청동기를 세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필자도 李健茂⁴⁶를 계승하여 이형청동기 A·B·C군을 기본 틀로 한다. A군은 검파형동기, 방패형동기, 나팔형동기로 대표되는 세트이며, 원개형동기, 소동탁이 더해진다(그림 6-1~8). A군에게 대응하는 다뉴경은 조문경(다뉴경Ⅱ단계)이다. B군은 팔주령, 쌍두령, 조합식쌍두령, 병부동령, 간두령 등 방울류로 대표된다(그림 6-13~19). 직접 공반하지는 않지만 동 시기에 원개형동기·소동탁 등의 청동기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6-28·29). B군에 대응하는 다뉴경은 세문경(다뉴경Ⅳ·Ⅴ단계)이다. C군은 간두령, 錨形銅鈴, 蠶形動鈴, 柄付動鈴, 소동탁으로 대표된다(그림 6-22~27). C군의 각종 청동기는 같은 시기이지만 명확한 공반 예가 없고 세트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C군과 다뉴경의 관계도 분명치 않다. C군 시기에는 이미 세문경 제작이 끝났을 것이다.

A군보다 이른 시기에도 소동탁 및 청동 장식이 존재한다(그림 6-9~12). 일부에는 凹文도 존재한다. 출토 자료를 정리한 결과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원형유문동기나 농경문 청동기(그림 6-20·21)는 A군과 B군을 연결하는 기종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자료가 부족하다.

이형청동기 각 군에 시기차가 있는 것은 다뉴경을 비롯하여 공반유물로 보면 분명하다. 그러나 각 군은 문양이나 방울을 사용하는 점 등이 같지만 기종은 갑자기 소멸·출현한다. 군을 걸치고 존재하는 기종은 계승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을 걸치는 기종에는 원개형동기, 소동탁, 간두령이 있다. 이 중에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고, 형태차이가 보이는 간두령을 채택해서 B군과 C군의 관계를 검토하려고 한다.

2. 竿頭鈴의 分析

간두령은 높이 14~18 cm 정도의 청동령기이며 두 개 한 벌이라고 생각된다. 수집품을 포함해 현재 20례가 알려져 있다. 이형청동기 B군·C군에 속한다. 외형은 環狀으로 돌출하는 鐐를 경계로 상부(신부)와 하부(원부)로 구분된다. 속이 텅 비어 있는 내부는 칸막이에 의해 상하로 구획되었다. 칸막이의 위쪽에는 銅丸 혹은 鉛丸이 1개 있고, 형지구멍(型持孔)을 겸하는 縱長구멍(鈴部孔)이 4개소 설치되었다. 鐐에는 1, 2개의 구멍이 신부에 접하여 뚫려 있다. 元部에 環耳를 붙인 예도 있다. 문양은 凹文이다. 短(斜)線文, 山形文, 菱形文, 三角文 등을 연속 시문한 문양대가 신부의 鈴部孔 사이나 하부에, 그리고 원부에서는 횡방향으로 배치된다.

간두령에서 시간차이를 나타내는 기본 속성은 이미 대략 파악되었다. 岡內가 먼저 착수해⁴⁷ 李健茂가 대강을 나타냈다⁴⁸. 岡內는 고식은 鈴部가 짧고 문양이 정치, 신식은 鈴部가 길고 문양이 조잡하다고 주장했다⁴⁹. 李健茂는 이외에 많은 특성에 대해 검토해 문양은 精에서 粗로, 鈴部는 低에서 高로, 동환은 小에서 大로, 鐐에서 裾로 도달하는 형상은 곡선에서 L자형으로 변화한다고 정리했다⁵⁰.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험의 성과를 계승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하의 형식을 설정한다.

우선 외형에 의해서 크게 2 분류한다(Ⅰ식·Ⅱ식). 게다가 鈴部 길이(칸막이의 위치)나 내면 형상에 의해서 세분한다. 각각 상관관계에 있는 각 요소가 형식을 구성한다. 각 형식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겠다.

Ⅰ식 외형상 신부와 원부가 각각 독립된 형태를 갖고, 喇叭形으로 열리는 원부 위에 砲 彈形의 신부가 놓인다. 내면은 외형에 맞춰 굴곡이 있다. 문양은 정밀하게 시문되었고, 鈴部の 길이에 따라서 세분된다(길이 6cm·신부고에 대한 비율 50%를 경계로 한다).

Ⅰa식 : 鈴部가 짧다. 문양대에 섬세한 方格文을 시문하는 등 정교한 장식을 행한다. 鐐孔은 2개이다. 伝論山, 伝徳山, 草浦里 등 6례가 있다.

Ib식: 鈴部가 길다. 短線文帶를 기조로 상대적으로 장식은 간소하다. 鐳孔은 하나 있다.

伝尚州, 伝洛東江, 入室里, 朝陽里, 国博M296①의 8례가 있다.

II식: 포탄형의 통에 환상의 鐳이 붙는 형상이다. 鈴部는 길다. 문양은 엉성하고, 連續菱形文을 기조로 한다. 내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세분한다.

IIa식: 내면의 鐳에 해당하는 부분이 溝狀으로 패인다. 鐳孔은 하나, 新川洞의 두 예가 있다.

IIb식: 내면에 굴곡이 없다. 鐳孔이 없다. 環耳가 붙는다. 竹東里의 두 예가 있다.

선학의 이해에 따르면 상술한 형식은 Ia식→Ib식→II식으로 배열된다. 분포와 아울러 보면 Ib식 이후, 분포 지역이 중서부·서남부에서 동남부로 이동하고 있다. I식에서 II식으로의 변화는 즉 이형청동기 B군으로부터 C군으로의 이행이기 때문에 이형청동기 B군의 신단계로 분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식에서 II식으로의 변화는 문양의 조잡화 등이 있지만, 그것은 청동기 제작기술의 변화와 관련한 큰 변화의 한 측면이다. 다음 장에서 청동기 제작기술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IV. 기원전 2세기를 전환기로 하는 지역적 성쇠

1. 영남지역의 대두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시기구분은 제설이었지만⁵¹, 비파형동검이전, 비파형동검기, 세형동검기, 퇴화형세형동검기의 대별에는 이론이 없다. 본고에서는 「출현기」 「형성기」 「발전기」 「쇠퇴기」로 부른다. 이형청동기 및 간두령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이형청동기B군(발전기)에서 이형청동기C군(쇠퇴기)까지 분포의 변화였다. 이전에 岡内가 명시하고⁵², 李清圭가 주제화했는데⁵³, 쇠퇴기에는 중서부·서남부의 청동기가 현저하게 쇠퇴하고 동남부가 성행한다. 발전기부터 쇠퇴기로 이행하면서 생긴 현상을 정리하면, 중서부·서남부지역의 쇠퇴현상에서는 다뉴세문경의 소멸, 이형청동기B군의 소멸이다. 동남부지역의 융성에는 동검의 비실용화 및 裝飾化⁵⁴, 有文銅矛·有文銅戈의 출현, 중국계문물의 출현, 철기의 보급 등이 있다. 새롭게 나온 요소로 특징지어진 각 시기에서 간두령은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희소한 요소이다. 간두령을 단서로 쇠퇴기·동남부청동기문화의 특징을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2. 제작 기법·생산체제에서 본 지역적 성쇠의 평가

한반도 청동기의 제작 기법에 대해서는 미해결의 문제도 적지 않지만 대체로의 특징을 뽑아내 정리하면 표2와 같다. 기종과 製法은 기본적으로 대응한다. 다뉴세문경은 挽型으로 성형·시문을 행한다. 文樣面에 1~2mm의 斷層이 인정되는 것은 規型을 회전해 정형한 면과 문양을 시문한 肌砂層이 박리된 결과일 것이다. 다뉴세문경 특유의 范傷이다. 또한 論山郡 恩津面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細線文銅戈에는 세문경의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실제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층의 유무는 불명이다. 또 세문경C식의 內區는 팔주령이나 원형유문동기의 모티브이다. 다뉴세문경과 이형청동기는 디자인상 연결되는 점이 있다.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형청동기는 土製合范으로 제작된다⁵⁵. 이형청동기의 시문기법에 대해서는 岡内가 많은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⁵⁶. 주목해야 할 것은 列点文이나 斜線文을 鑄型面의 凸部에 직접 시문하는 방법이다. 전체적으로 凹文을 지향하는 가운데 凸文시문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제품에 볼 수 있는 예기

치 못한 실패는 한층 더 구체적인 시문방법을 알려 준다. 자주 이형청동기는 문양대의 부분적 소멸이나 이동이 관찰된다. 문양이 끊어진 부분은 器面과 같은 레벨이다. 따라서 鑄型의 凸部는 무너진 것이 아니고 벗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품의 凹文은 시문과정에 있어서 남겨진 부분이다.

시문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우선 무문의 原型에 外形을 모사한다. 기면을 정돈해 건조시킨 후, 두께 1mm정도의 帶를 붙인다. 凸文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조각하고, 凹文으로 표현하는 부분 이외를 벗겨낸다(결과, 완성된 凹文은 수직으로 끊어진 상태가 된다). 鑄型소성시에 첨부 부분이 박리, 이동, 固着한다. 보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푸집에 씻물을 붓는다.

이상의 시문기법을 「띠붙임 기법(貼り帶技法)」이라고 불러 둔다. 띠붙임 기법은 이형 청동기 A·B군에게 공통되어 볼 수 있지만 C군에는 볼 수 없다. 간두령으로 보면 I 식에서 문양이 일부 벗겨져 떨어진 것이나, 凹文의 칼자국을 낸 상태 등은 띠붙임 기법에 의한 시문으로 이해해도 된다. 그러나 II식은 문양의 緣線이 갖추어지지 않고, 凹文의 칼자국도 완만하다. 原型에 직접 시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 IIa식의 新川洞 것은 鈴部孔을 型持에 사용하지 않고 鈴部孔 사이의 身部에 거푸집을 맞추었다. 기술적인 계승성은 낮다. 이형청동기 C군의 錨形銅鈴은 사진에는 原型에 직접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凹文을 가지는 동모 중에는 거푸집에 凸文을 시문한 예가 보이지만 띠붙임 기법과는 다른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지만 이형청동기 C군 및 쇄퇴기의 동남부 지방은 띠붙임 기법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쇄퇴기·동남부 청동기 문화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이해된다.

다뉴세문경의 최종 단계의 분포상황은 제작 중심지에 의한 배포 제한이 있었다. 동남부에서 다뉴경을 제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挽型과 세선문은 전해지지 않았다.

石范製作의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계승되었다. 무기는 기능이 퇴화한 신형식이 출현한다. 유문동모·유문동과가 많이 제작되었고, 石製鑄型에 綾杉文이나 鋸齒文을 조각하였다. 세문경 제작기술이 없기 때문에 세선문청동과는 출현하지 않는다.

이형청동기 B군은 동남부에도 전해졌다. 이형청동기 C군은 B군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기종이나 기술의 계승은 한정되었다. 表裏面이 대칭형인 기물이 제작될 뿐 팔주령과 같이 복잡한 조형은 만들지 않았다. 鈴器의 형태도 B군의 연장선상이지만 새로운 기종이 창출되었다.

失蠟法에 따라 다종다양한 검과두식이 제작되어 검을 장식했다. 칼집을 포함해서 검의 장식과다 경향은 청동기 무기의 역할이 변질한 것을 반영한다. 쏘나 戈도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기의 변질은 공반유물에서 보이듯이 철기의 출현에 기인한다.

3.기원전 2세기를 전환기로 하는 세형동검 문화의 지역적 성쇠

이형청동기 C군이 속하는 쇄퇴기는 부장품 중의 中原문물에 의해서 낙랑군 설치 이후로 이해된다. 그러면 선행하는 이형청동기 B군은 기원전 2세기대 및 그 이전이 된다.

쇄퇴기에 선행하는 「발전기」는 네 시기로 구분 가능하고, 발전 1기 <다뉴경II단계, 이형청동기A군>, 발전 2기 <다뉴경III단계, 과의 출현>, 발전 3기 <다뉴경IV·V단계, 이형청동기 B군>, 발전 4기 <다뉴경V단계, 철기·유리의 출현> 이 된다.

이형청동기 B군의 출현은 발전 3기이기 때문에 간두령 Ib식은 발전 4기가 된다. 현행 시기 구분에 따르면 이형청동기의 분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부장품에 주조 철기가 더해지는 무렵이 된다. 쇄퇴기가 되면 중서부·서남부의 청동기 제작은 쇄퇴하고 동남부 지역의 청동기 제작이 활성화된다. 기술적 단절을 고려

하면 인적 이동은 아니고 동남부 지역의 주체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쇠퇴기 이후, 동남부지역은 서부지역(大同江·載寧江流域)과의 연결이 강해진다. 세형 동모에서는 양자 공통 형식이 출현하고 낙랑군에서 유래하는 거마구나 한경이 동남부에 나타난다. 동시에 야요이 청동기가 부장품으로 사용되어 북부구슬와의 관계도 강해진다.

이상의 제 현상을 연결하면 철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관계가 구축되는 가운데 한반도 남부의 지역 관계가 변질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남부에 철기가 나타나면 종래의 이형청동기 B군이 다뉴세문경의 威容은 급속히 쇠약해져 이형청동기 B군의 일부는 동남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어서 다뉴세문경이나 이형청동기 B군이 모습을 감추고 동남부 지역에서 이형청동기 C군을 비롯한 새로운 청동기문화가 창출된다. 동남부에서는 동시에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해 대외교류가 현저하게 활성화한다. 그것은 동남부 지역이 지역 세력으로서 대두하는 과정이며 「弁辰鐵」의 前史로 이해된다.

자료의 열람에 즈음해 辰馬考古資料館 青木政幸님 국립대구박물관 장용준님께 조력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註

1. 宮里修 2001a 「朝鮮半島の銅劍について」 『古代』 第109号 P.125-159 早稲田大学考古学会
宮里修 2001b 「多鈕粗文鏡について」 『史観』 第144冊 P.65-84 早稲田大学史学会
宮里修 2007 「朝鮮式細形銅劍の成立過程再考—東北アジア琵琶形銅劍の展開のなかで—」 『アジア地域文化学叢書VII 中国シルクロードの変遷』 P.164-192 雄山閣
2. 宇野隆夫 1977 「多鈕鏡の検討」 『史林』 第60卷第1号 P.86-117 史学研究会
全榮來 1977 「韓国青銅器文化の系譜와 編年—多鈕鏡の變遷을 中心으로—」 『全北遺蹟調査報告』 第7輯 P.4-85 全州市立博物館
岩永省三 1983 「多鈕細文鏡再考」 『文化財論叢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 P.963-983 同朋舎出版
3. 甲元眞之 1990 「多鈕鏡の再検討」 『古文化談叢』 第22集 P.17-45 九州古文化研究会
李健茂 1992 「韓国の青銅器文化」 『韓国の青銅器文化』 P.126-142 汎友社
平吹豊 1999 「多鈕細文鏡の検討」 『國學院大學考古学資料館紀要』 第15輯 P.44-62 國學院大學考古学資料館
李陽洙 2004 「多鈕細文鏡으로 본 한국과 日本」 『嶺南考古学』 第35号 P.37-57 嶺南考古学会
4. 前掲註3 (甲元 1990)
5. 前掲註2 (宇野 1977)
6. 前掲註2 (全榮來 1977)
7. 前掲註1 (宮里 2001b)
8. 岡内三眞 1983 「朝鮮の異形有文青銅器の製作技術」 『考古学雑誌』 第69卷第2号 P.73-116 日本考古学会
9. 三船温尚・後藤直 2004 「復元鑄造と出土遺物から考察する韓国青銅八珠鈴の鑄造方法」 『高岡短期大学紀要』 第19卷 P.181-202 高岡短期大学
10. 李健茂 1992 「韓国青銅儀器の研究—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国考古学报』 第28輯 P.131-216 韓国考古学会
11. 정철만 1996 「장리 고인돌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6년 제4호 P.10-1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2. 김용간・안영준 1986 「함경남도, 량강도 일대에서 새로 알려진 청동기시대유물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1986년 제1호 P.24-29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3.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6 『유적 발굴 보고 제1집 라진 초도 원시 유적 발굴 보고서』 과학원

14. 서국태 1965 「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고」 『고고민속』 1965년 제2호 P.35-45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5. 李殷昌 1968 「大田槐亭洞 青銅器文化의 研究—石器·黑陶·青銅器·裝身具의 結合文化를 中心으로—」 『亜細亞研究』 第XI卷第2卷 P.75-95 高麗大學校 亜細亞問題研究所
16. 池健吉 1978 「礼山東西里石棺墓出土青銅一括遺物」 『百濟研究』 第9集 P.151-181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7. 韓炳三·李健茂 1977 「南城里石棺墓」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10冊 國立中央博物館
18. 全榮來 1975 「全北遺跡調查報告」 제5집 全州市立博物館
20. 梅原考古資料2578. 前掲註8 (岡内 1983)
21. 李健茂 1984 「伝 益山出土 円形有文青銅器」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P.105-127 通川文化社
22. 趙由典 1984 「全南和順青銅遺物一括出土遺物」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P.67-103 通川文化社
23. 前掲註10
24. 國立光州博物館·全羅南道·咸平郡 1988 「咸平草浦里遺蹟」 國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第14冊
25. 前掲註10
26.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頭夫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查報告書 第二冊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朝鮮總督府
27. 李健茂 1990 「扶餘合松里遺蹟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 第2輯 P.23-67 韓國考古美術研究所
28. 前掲註26
29. 韓炳三 1987 「月城竹東里出土青銅一括遺物」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考古篇—』 P.103-120 一志社
30. 안영준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8. 함경남도에서 새로 알려진 고대유물」 『고고학자료집』 제6집 P.182-18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1.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養徳社
32. 尹容鎮 1980 「考古·石像物篇」 『慶尚北道文化財地表調査報告 (I) —大邱·達城·慶山·漆谷地區—』 P.9-128 慶北大學校博物館
33. 金元龍 1952 「慶州九政里 出土 金石併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 第1輯 P.3-14 歷史學會
34. 尹容鎮 1981 「韓國青銅器文化研究—大邱坪里洞出土一括遺物檢討—」 『韓國考古學報』 第10·11合輯 P.1-22 韓國考古學會
35. 榎本杜人 1980 「朝鮮發見小銅鐸の集成」 『考古學』 第7卷第6号 東京考古學會 (榎本 1980 「朝鮮の考古學」 同朋舎に再録)
36. 前掲註26. 榎本杜人 1934 「平安南道大同郡龍岳面上里遺跡調查報告」 『朝鮮總督府博物館報』 第6号 P.2-31 朝鮮總督府博物館
37. 정찬영 1962 「좁은 낫 단검 (세형 동검)의 형태와 그 변천」 『문화유산』 1962년 제3호 P.19-44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38. 國立中央博物館 1992 「韓國의 青銅器文化」 汎友社
39. 박진옥 1974 「함경남도 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제4호 P.165-18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40. 前掲註10
41. 湖巖美術館 1997 「湖巖美術館所藏 金東鉉蒐集文化財」 三星文化財団
42. 前掲註8
43. 前掲註10
44. 前掲註9
45. 金鍾一 1994 「韓國 中西部地域 青銅遺跡·遺物의 分布와 祭儀圈」 『韓國史論』 31 P.1-72 서울大學校人文大學國史學科
46. 前掲註10
47. 前掲註8
48. 前掲註10

49. 前掲註8

50. 前掲註10

51. 以下の文献ほか多数。

尹武炳 1972 「韓国 青銅遺物の研究」 『白山学報』 제12호 P.59-134 白山学会

後藤直 1982 「朝鮮半島の青銅器と土器・石器」 『古文化論集 森貞次郎博士古稀紀年論文集 上巻』 P.243-296 同刊行会

後藤直 1985a 「青銅器文化の系譜」 森貞次郎編 『稲と青銅と鉄』 P.83-108 日本書籍

後藤直 1985b 「朝鮮半島青銅器文化の地域性」 『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論文集 考古編』 P.127-149 平凡社

李清圭 1982 「細形銅劍의 型式分類 및 變遷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第13輯 P.1-37 韓國考古学会

李清圭 1997 「嶺南地方 青銅器文化의 展開」 『嶺南考古學』 第21号 P.29-77 嶺南考古学会

近藤喬一 1984 「日・韓青銅器の諸問題」 井上光貞ほか編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2 倭国の形成と古墳文化』 P.246-309 学生社

近藤喬一 2000 「東アジアの銅劍文化と向津具の銅劍」 『山口県史—資料編 考古1—』 P.709-794 山口県

岡内三眞 1989 「朝鮮の青銅器文化」 『季刊考古学第27号 青銅器と弥生社会』 P.79-84 雄山閣出版

下條信行 1991 「青銅器文化と北部九州」 『新版 古代の日本 第3巻 九州・沖縄』 P.77-100 角川書店

前掲註3 (李健茂 1992)

朴淳發 1993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 『한강유역사』 P.115-223 민음사

広瀬和雄 1993 「弥生時代首長のイデオロギー形成」 『弥生文化博物館研究報告』 第2集 P.1-35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武末純一 2002 「弥生文化と朝鮮半島の初期農耕文化」 佐原真編 『古代を考える—稲・金属・戦争：弥生—』 P.105-138 吉川弘文館

趙鎮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考古学叢書37 学研文化社

52. 前掲註51 (岡内 1989)

53. 前掲註51 (李清圭 1997)

54. 前掲註1 (宮里 2001a)

55. 岡内三眞 1980 「朝鮮初期金属器の製作技術」 『古代探叢—滝口宏先生古稀記念考古学論集—』 P.623-644 早稲田大学出版部

岡内三眞 1984 「東北アジアにおける青銅器の製作技術」 『尹武炳博士回甲紀年論叢』 P.623-654 通川文化社

後藤直 (代表) 2005 『弥生時代青銅器鑄造に関する日韓比較による実見考古学的研究』 北九州鑄金研究会

56. 前掲註8

多鈕細文鏡と異形青銅器からみた細形銅剣文化の地域的盛衰

宮里 修

I. はじめに

紀元前一千年紀の朝鮮半島（以下、朝鮮）は初期農耕社会が拡大し、「朝鮮」や「韓」などの地域勢力へと成長していく過程にある。対象となる考古資料には土器・石器・青銅器・集落・墓制など各種があり、社会の変化が資料の性質に応じて各様に描かれてきた。青銅器、とりわけ細形銅剣文化は「権力」の問題と関連づけて理解されてきたが、筆者は細形銅剣文化の形成と展開を検討する過程で⁽¹⁾、青銅器から地域勢力の発現・台頭を捉える問題意識をもった。そこで本稿では、細形銅剣文化の後半段階に生じた地域的盛衰を青銅器製作技術の観点から跡づける、という課題を設定する。まず多鈕細文鏡、異形青銅器および竿頭鈴の変遷を検討し、つづけて時空間的推移を製作技術の観点から捉えなおし、最後に歴史的脈絡から考察する。

II. 多鈕細文鏡の変遷

1. 分類の概要

多鈕細文鏡の分類には、文様の最小単位に注目した「単位文様分類法」⁽²⁾と文様帯数で大別する「二区・三区式分類法」⁽³⁾がある。甲元⁽⁴⁾以後の研究はいずれも「二区・三区式分類法」を採用しており共通理解となりつつある。しかし、簡潔な分類方法により多くの賛同を得た「二区・三区式分類法」には看過できない問題点がある。簡潔に言えば、型式設定においては文様の類似する資料が別型式、似て非なる文様をもつ資料が同型式に属する点に難があり、方法においては型式を共伴関係に優先させ多鈕鏡同士の共伴関係を伝世と処理する点に問題がある。詳細は別稿にゆずるが、筆者は外区文様を軸に文様構成や面径との相関を検討し、多鈕細文鏡の新たな分類を試みた。以下に分類と編年の概要を記す。

分類の要件は、単位文様、面径、区画面積である。単位文様は宇野⁽⁵⁾の案を再整理し図1のように整理した。新たに内区区画類型を加えている。面径は全榮來⁽⁶⁾の基準をもとに超大型、大型、中型、小型に区分した（図2）。区画面積は単位文様を充填する区画の大きさを類別した（図3）。外区文様を軸に以上の属性の相関をみると、細文鏡はA式、B式、C式、D式の4型式に区分される。以下に概要を記す。

細文鏡A式は、粗文鏡の諸要素を継承した鏡群で外区の対向三角文Aを共通項とする。区画の複雑化、面径の大型化、区画面積の小区画化という変化を内包し、変化過程の各段階がAⅠ式、AⅡ式、AⅢa・b式、AⅣa・b式として細分される。

細文鏡B式は、外区に区画帯のない対向三角文B、間区に充填文N円圈帯を複数連ねた構成をとる。面径の大型化、区画面積の小区画化という変化を内包し、変化過程の各段階がBⅠ式、BⅡ式として細分される。

細文鏡C式は、10cm前後の面径を中心要素とし、三鈕、対向三角文Cという2つの属性が組み合わさる。内区は他型式や異形青銅器のモチーフが移植された。内区区画の違いによりCⅠ式、CⅡ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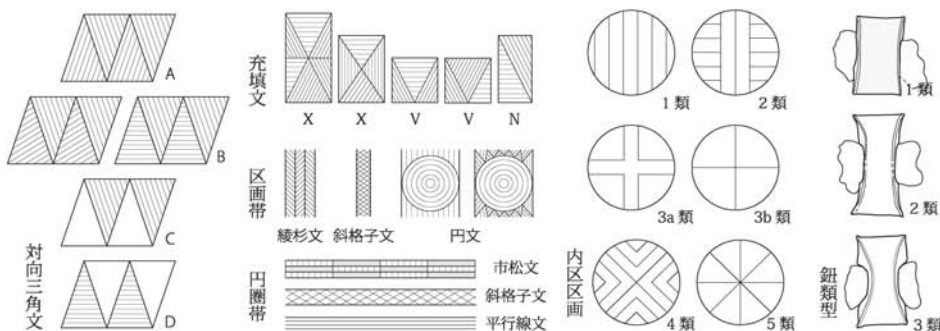


図1 多鈕細文鏡の充填文、区画帯、円圈帯、内区区画、鈕類型

CⅢ式、CⅣ式、CⅤ式に細分されるが、各細分型式は系統を異にし型式組列をなさない。

細文鏡D式は、外区に区画帯のない対向三角文Dを配するもので、間区・内区は細文鏡A式に似る。細文鏡A式の外区を差異化することで創出されたとみる。文様構成は多様で細分の可能性を残すが、現時点では有意な細分はのぞめない。

2. 変遷について

前節の型式のうち、細文鏡A式は細文鏡の全期間にわたって存在し編年の軸となる。細文鏡A式の細分諸型式は図4のように連続的に変化する。区画の複雑化→大型化→小区画化という細文鏡A式の変化内容は、他型式との型式学的関連性を検討する材料となる。

細文鏡BⅠ式→BⅡ式の小区画化、細文鏡C式およびD式の区画面積と内区区画法には、細文鏡

A式との連動が認められ

る。副葬時の共伴関係とあわせて、型式組成の観点からいま一度細文鏡全体の変遷をみると、大きく3つの段階が設定できる。粗文鏡で設定したⅠ・Ⅱ段階⁽⁷⁾

につづけて、多鈕鏡Ⅲ・

Ⅳ・Ⅴ段階とする。多鈕鏡Ⅲ段階は細文鏡の形成期、多鈕鏡Ⅳ段階は多様化と差異化が進行する時期で、細文鏡Ⅴ期は明確に差異化された諸型式が出揃い細文鏡の体系が整った時期である。

段階ごとの分布様相をみると、多鈕鏡Ⅴ段階に興味深い現象が認められる(図5)。細文鏡の型式組列において大型鏡として差異化され、異形青銅器とセットで副葬される細文鏡A式の分布が、Ⅴ段階になると西部と中西部・西南部という二大青銅器分布圏に限定される。そして多鈕細文鏡はⅤ段階を最後に突如として姿を消してしま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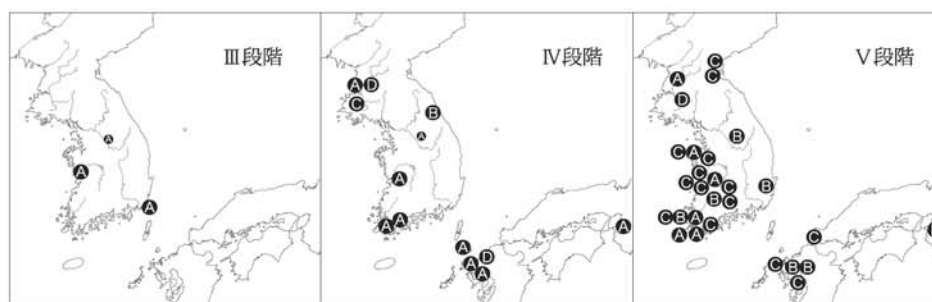


図5 多鈕細文鏡各段階の分布状況

III. 異形青銅器の推移

1. 異形青銅器の概要

「精緻な文様をもつ用途不明の異形青銅器」⁽⁸⁾、「精緻な幾何文様をもつ異様な形態の青銅器」⁽⁹⁾と表現される一群が「異形青銅器」である。李健茂⁽¹⁰⁾は「異形銅器のうちで、概ねおなじ系統の単位文様をもち、シャーマニズム的な要素をそなえ、儀礼に使用されたとみられる一切の道具」(筆者訳)を「儀器」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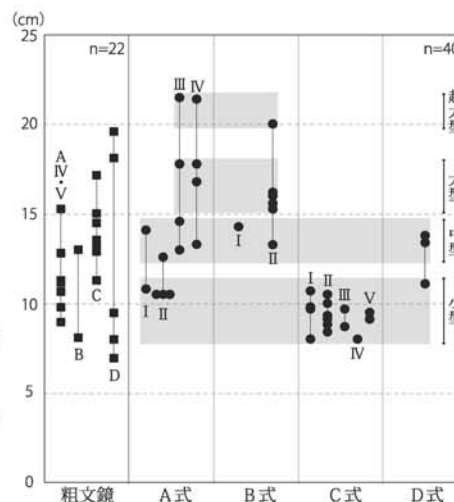


図2 多鈕細文鏡の面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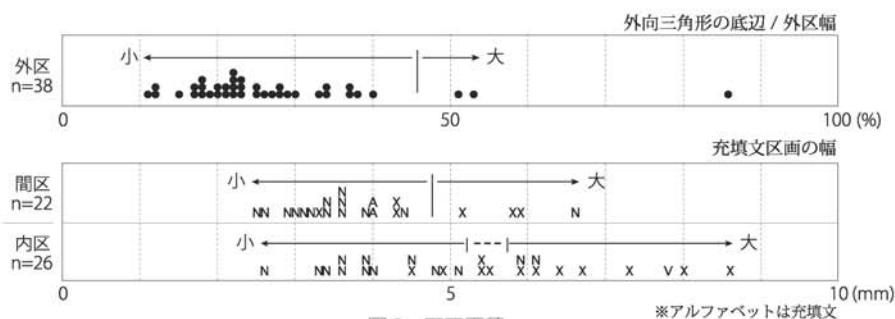


図3 区画面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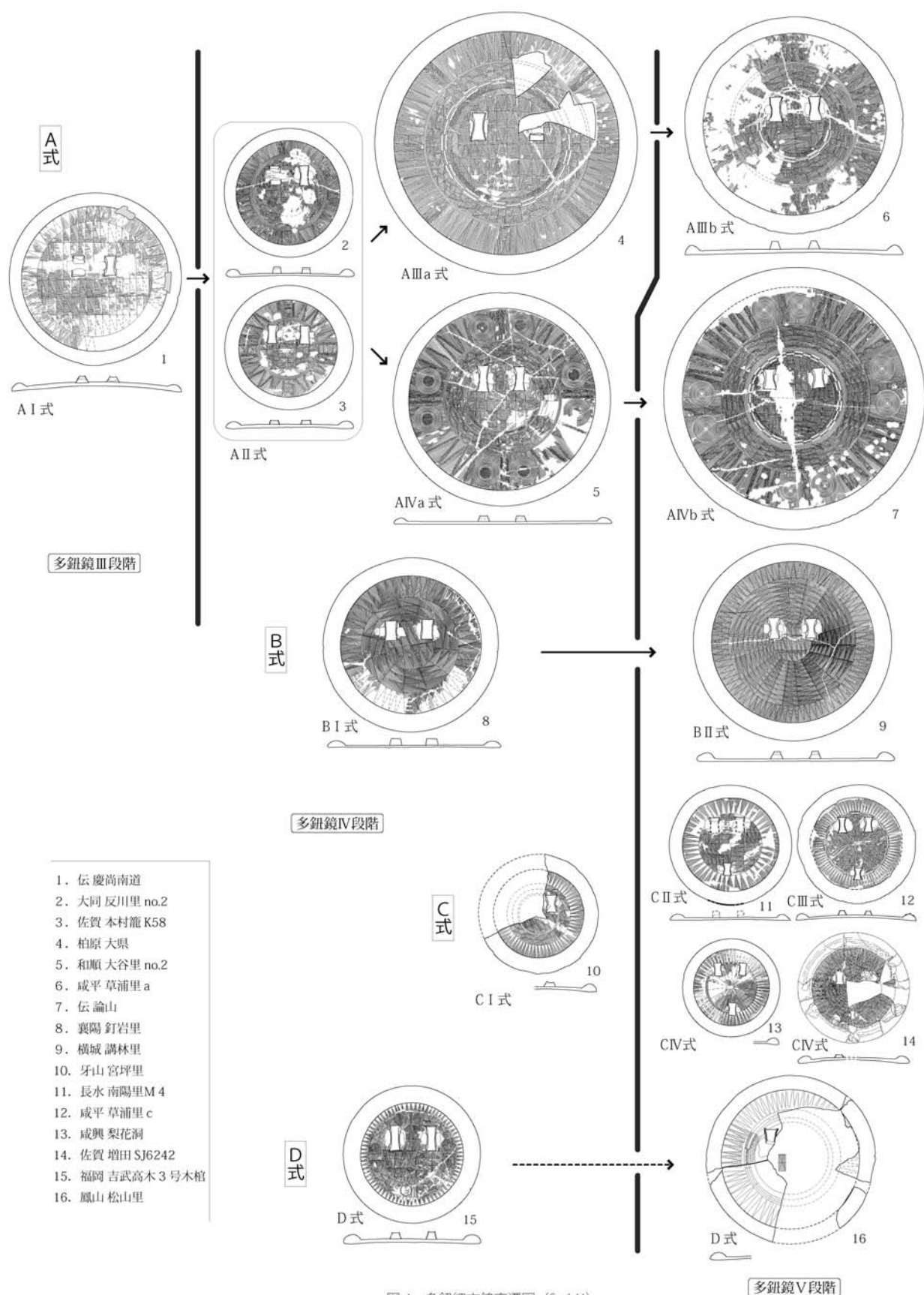


図4 多鈕細文鏡変遷図 (S=1/4)

理解した。具体的な器種には、劍把形銅器、防牌形銅器、喇叭形銅器、肩甲形銅器、円形有文銅器、八珠鈴、双頭鈴、組合式双頭鈴、柄付銅鈴、竿頭鈴、錨形銅鈴、蛭形銅鈴などがある。異形青銅器は土范や凹文などの製作技術に基づいたある種の技術様式ともいえるが、儀礼に関連した道具として理解するなら、製法の共通性をこえて円蓋形銅器、小銅鐸、多鈕鏡を加えるべきであろう。前章で検討した多鈕鏡をのぞく異形青銅器には以下の事例がある。

1. 平壤 場里1号支石墓⁽¹¹⁾：小銅鐸2，曲芸銅裝飾1
2. 北青 土城里2号住居址⁽¹²⁾：小銅鐸1
3. 羅津 草島I-4地点⁽¹³⁾：小銅鐸1
4. 金野 金野邑⁽¹⁴⁾：小銅鐸鑄型1
5. 大田 槐亭洞⁽¹⁵⁾：劍把形銅器3，防牌形銅器1，小銅鐸2，円蓋形銅器1，多鈕鏡2
6. 礼山 東西里⁽¹⁶⁾：劍把形銅器3，喇叭形銅器2，円蓋形銅器1，多鈕鏡5
7. 牙山 南城里⁽¹⁷⁾：劍把形銅器3，防牌形銅器1，多鈕鏡2
8. 益山 多松里⁽¹⁸⁾：円蓋形銅器2，多鈕鏡1
9. 伝大田⁽¹⁸⁾：防牌形銅器（農耕文青銅器）1
10. 伝慶州⁽²⁰⁾：肩甲形銅器1
11. 伝益山⁽²¹⁾：円形有文銅器1
12. 和順大谷里⁽²²⁾：八珠鈴2，双頭鈴1，多鈕鏡2
13. 伝論山⁽²³⁾：八珠鈴2，竿頭鈴2，双頭鈴2，組合式双頭鈴1，多鈕鏡1
14. 咸平草浦里⁽²⁴⁾：竿頭鈴2，双頭鈴1，組合式双頭鈴1，柄付銅鈴1，多鈕鏡3
15. 伝徳山⁽²⁵⁾：八珠鈴2，竿頭鈴2，双頭鈴2，組合式双頭鈴1
16. 伝尚州⁽²⁶⁾：八珠鈴2，竿頭鈴2，双頭鈴1，組合式双頭鈴1
17. 扶餘合松里⁽²⁷⁾：小銅鐸2，円蓋形銅器1，多鈕鏡1
18. 慶州入室里⁽²⁸⁾：竿頭鈴2，錨形銅鈴1，柄付銅鈴1，小銅鐸1，多鈕鏡1
19. 月城竹東里⁽²⁹⁾：竿頭鈴2
20. 咸州朝陽里⁽³⁰⁾：竿頭鈴1
21. 伝洛東江⁽³¹⁾：竿頭鈴2
22. 大邱新川洞⁽³²⁾：竿頭鈴2
23. 慶州九政洞⁽³³⁾：蛭形銅鈴2，小銅鐸1
24. 大邱坪里洞⁽³⁴⁾：小銅鐸4
25. 平壤付近⁽³⁵⁾：小銅鐸鑄型1
26. 大同上里⁽³⁶⁾：小銅鐸3
27. 平壤貞栢里97号墓⁽³⁷⁾：蛭形銅鈴1
28. 康津牛頭里⁽³⁸⁾：蛭形銅鈴1
29. 北青下細洞里⁽³⁹⁾：鈴部片1
30. 国立博物館M296⁽⁴⁰⁾：竿頭鈴2
31. 伝慶北⁽⁴¹⁾：竿頭鈴片1

異形青銅器を主題とした研究は少ない。岡内は製作技術の詳細な観察に基づいて、文様の精粗や竿頭鈴の形状に時間差を見だし、異形青銅器のセットを配列した⁽⁴²⁾。李健茂は儀器研究として異形青銅器を検討し、セット関係にA群・B群・C群の三群を設定した⁽⁴³⁾。後藤は八珠鈴の復元製作にあたって異形青銅器の時期相を示しセット関係の妥当性を再確認した⁽⁴⁴⁾。他に、異形青銅器を最上位等級の副葬品とみて祭儀圏の導出に利用した研究などもある⁽⁴⁵⁾。いずれの場合も異形青銅器はセット関係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

筆者も李健茂⁽⁴⁶⁾を継承し異形青銅器A・B・C群を基本枠とする。A群は劍把形銅器、防牌形銅器、喇叭形銅器に代表されるセットで円蓋形銅器、小銅鐸が加わる（図6-1～8）。A群に対応する多鈕鏡は粗文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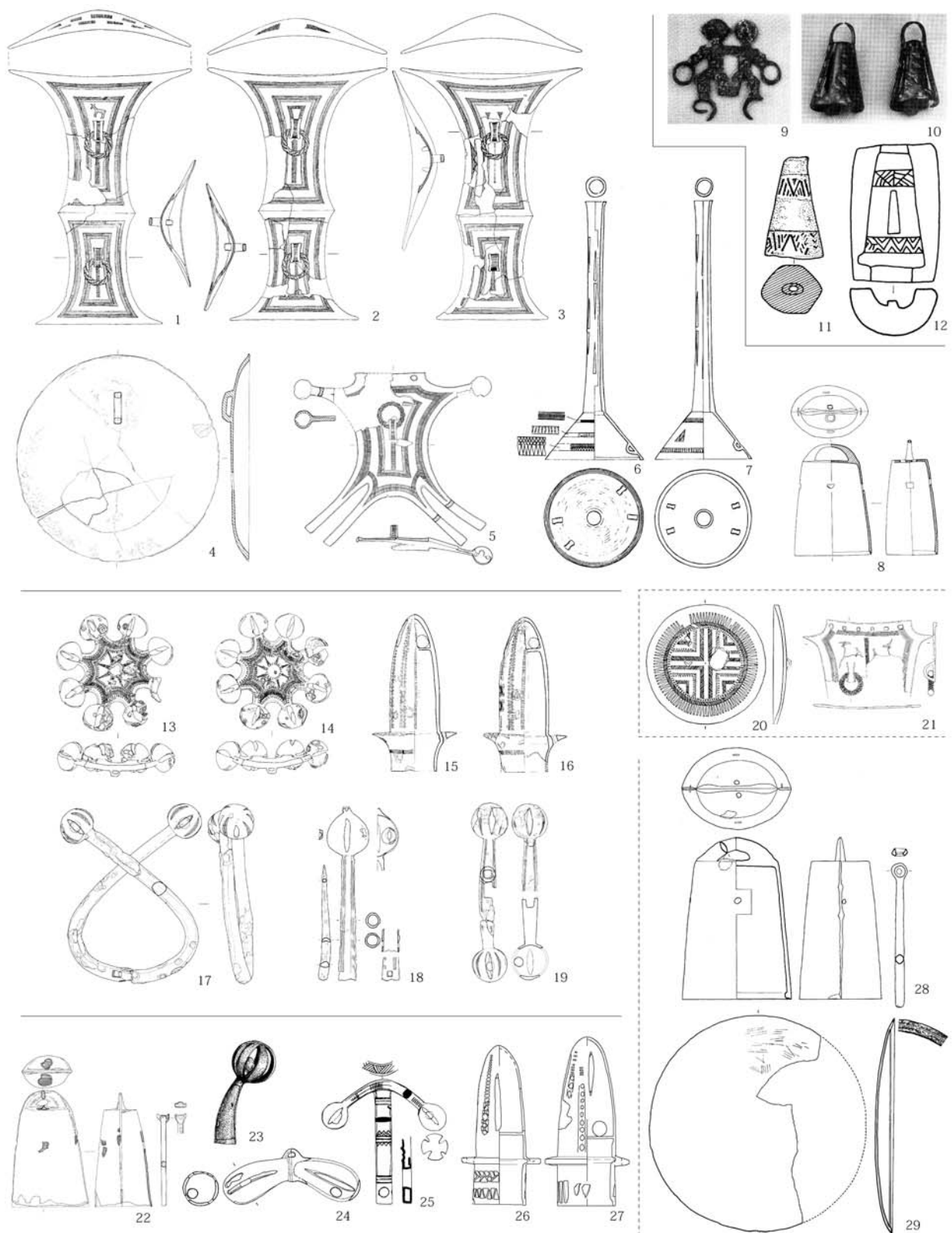


図6 異形銅器と関連遺物 (S=1/5)

(1~3・5. 牙山南城里, 4・6・7. 礼山東西里, 8. 大田 槐亭洞, 9・10. 祥原 場里1号支石墓, 11. 羅津 草島, 12. 金野 金野邑, 13~17・19. 伝 論山, 18. 咸平 草浦里, 20. 伝 益山, 21. 伝 大田, 22・23・25. 慶州 入室里, 24. 湖嶽美術館蔵, 26・27. 大邱 新川洞, 28・29. 扶餘 合松里)

(多鈕鏡Ⅱ段階)である。B群は八珠鈴、双頭鈴、組合式双頭鈴、柄付銅鈴、竿頭鈴など鈴具に代表される(図6-13~19)。直接は共伴しないが同時期に円蓋形銅器・小銅鐸が存在した可能性は高い(図6-28・29)。B群に対応する多鈕鏡は細文鏡(多鈕鏡Ⅳ・Ⅴ段階)である。C群は竿頭鈴、錨形銅鈴、蛭形銅鈴、柄付銅鈴、小銅鐸に代表される(図6-22~27)。C群の各種青銅器は、同時期ではあるが明確な共伴例がなくセット関係の意義ははっきりしない。C群と多鈕鏡の関係も不明瞭である。C群の時期には既に細文鏡製作が終わっているはずである。

A群を遡る時期にも小銅鐸および青銅装飾が存在する(図6-9~12)。一部には凹文もみられる。資料がまとまったところでいま一度検討する必要がある。また円形有文銅器や農耕文青銅器(図6-20・21)はA群とB群をつなぐ器種とも考えられるが検討材料が不足している。

異形青銅器各群が時期差の関係にあるのは、多鈕鏡をはじめとする共伴遺物から明らかである。しかし各群は、文様や鈴の使用などが共通するものの器種の消滅・出現は突然である。群をまたいで存在する器種によって継承関係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群をまたぐ器種には円蓋形銅器、小銅鐸、竿頭鈴がある。このうち、ある程度の資料数と形態差がある竿頭鈴をとりあげ、B群とC群の関係を検討する。

2. 竿頭鈴の分析

竿頭鈴は高さ14~18cmほどの青銅鈴器で、二個一対で機能したとみられる。蒐集品もあわせ現在20例が知られる。異形青銅器B群・C群に属する。外形は、環状に突出する鍰を境に上部(身部)と下部(元部)に区分される。中空の内部は仕切り板によって上下に区画される。仕切り板の上側(鈴部)には銅丸もしくは鉛丸が1つ入り、型持孔を兼ねる縦長孔(鈴部孔)が4箇所設けられる。鍰には1、2個の孔が身部に接して穿たれる。元部に環耳がつく例もある。文様は凹文である。短(斜)線文、山形文、菱形文、三角文などを連続施文した文様帯が、身部では鈴部孔の間や下部に、元部では横方向に配置される。

竿頭鈴の時間差をしめす基本的属性は既にほぼ把握されている。岡内が先鞭をつけ⁽⁴⁷⁾李健茂が大綱を示した⁽⁴⁸⁾。岡内は、古相は鈴部が短くて文様が精緻、新相は鈴部が長く文様が粗雑と主張した⁽⁴⁹⁾。李健茂はさらに多くの特性について検討し、文様は精から粗へ、鈴部は低から高へ、銅丸は小から大へ、鍰から裾へいたる形状は曲線からL字形へ変化すると整理した⁽⁵⁰⁾。本稿では基本的に先学の成果を継承するが、より具体的な議論のために以下の型式を設定する。

まず外形によって大きく2分類する(Ⅰ式・Ⅱ式)。さらに鈴部長さ(仕切り板の位置)や内面形状によって細分する。それぞれで相関関係にある各要素が型式の内容を特徴づける。各型式の内容を以下に記す。

Ⅰ式 外形上、身部と元部はそれぞれ独立した形態をもち、喇叭形に開く元部の上に砲弾形の身部が載る格好をとる。内面は外形にあわせて屈曲する。文様は精緻に鑄出される。鈴部の長さによって細分される(長さ6cm・身部高に対する割合50%を境界とする)。

Ⅰa式: 鈴部が短い。文様帯に細かな方格文を添えるなど手の込んだ装飾をおこなう。鍰孔は2つ。類例は伝論山、伝徳山、草浦里の6例がある。

Ⅰb式: 鈴部が長い。短線文帯を基調とし相対的に装飾は簡素である。鍰孔は1つ。

表1 竿頭鈴出土一覧

遺跡名	所在地	地域	型式	器高	鈴部	鍰孔
伝 論山 ①	忠南 論山郡	中西部	Ⅰa	15.9	3.4	2
伝 論山 ②	忠南 論山郡	中西部	Ⅰa	15.5	3.1	2
伝 徳山 ①	忠南 礼山郡	中西部	Ⅰa	14.8	5.5	1
伝 徳山 ②	忠南 礼山郡	中西部	Ⅰa	14.5	5.7	1
草浦里 ①	全南 咸平郡	西南部	Ⅰa	14.5	5.1	2
草浦里 ②	全南 咸平郡	西南部	Ⅰa	14.3	5.0	2
伝 尚州 ①	慶北 尚州市	東南部	Ⅰb	14.7	6.6	1
伝 尚州 ②	慶北 尚州市	東南部	Ⅰb	—	—	—
国博 M296 ①	—	—	Ⅰb	17.6	7.4	1
伝 洛東江 ①	—	東南部	Ⅰb	17.2	8.2	1?
伝 洛東江 ②	—	東南部	Ⅰb	17.5	9.4	1?
入室里 ①	慶北 慶州市	東南部	Ⅰb	16.6	8.4	1
入室里 ②	慶北 慶州市	東南部	Ⅰb	16.5	8.2	1?
朝陽里	咸南 咸州郡	東部	Ⅰb	16.3	8.0	1
新川洞 ①	慶北 大邱市	東南部	Ⅱa	16.0	9.4	1
新川洞 ②	慶北 大邱市	東南部	Ⅱa	16.9	9.3	1
竹東里 ①	慶北 月城郡	東南部	Ⅱb	15.4	6.9	0
竹東里 ②	慶北 月城郡	東南部	Ⅱb	15.5	7.3	0
伝 慶北	慶北	東南部	—	3.8	—	—
国博 M296 ②	—	—	—	—	—	—

類例は伝尚州，伝洛東江，入室里，朝陽里，国博M296①の8例がある。

Ⅱ式 砲弾形の筒に環状の鏝がつく形状である。鈴部は長い。文様は粗く，連続菱形文を基調とする。内面の形状をもとに細分する。

Ⅱa式：内面の鏝にあたる部分が溝状に凹む。鏝孔は1つ。類例は新川洞の2例がある。

Ⅱb式：内面には屈曲がない。鏝孔がない。環耳がつく。類例は竹東里の2例がある。

先学の理解に従えば上記の型式はⅠa式→Ⅰb式→Ⅱ式と配列される。分布とあわせてみると，Ⅰb式以降，分布域が中西部・西南部から東南部へと移動している。Ⅰ式からⅡ式への変化は，すなわち異形青銅器B群からC群への移行であるから，異形青銅器B群の新段階に分布域の変化があったと分かる。分布の変化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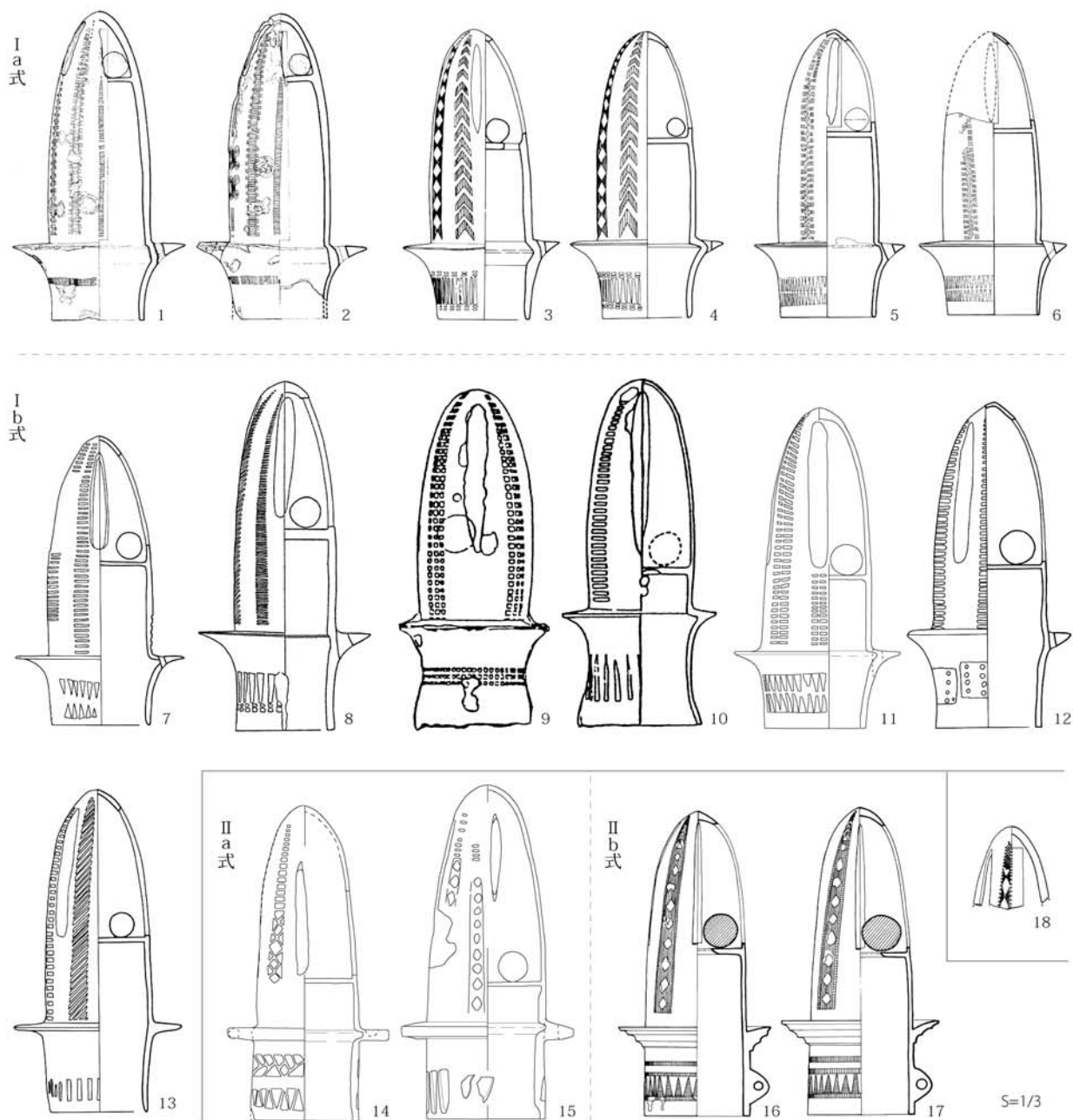


図7 竿頭鈴の諸型式

(1・2. 伝 諭山①②, 3・4. 伝 徳山①②, 5・6. 咸平 草浦里 a・b, 7. 伝 尚州①, 8. 国博 M296, 9・10. 伝 洛東江, 11・12. 慶州 入室里①②, 13. 咸州 朝陽里, 14・15. 大邱 新川洞①②, 16・17. 月城 竹東里①②, 18. 湖巖美術館蔵)

関わるⅠ式からⅡ式への変化には文様の粗雑化などがあるが、それは青銅器製作技術の変化と関連した大きな変化の一側面である。次章で青銅器製作技術の観点から捉えなおす。

Ⅳ. 紀元前2世紀を転機とする地域的盛衰

1. 嶺南地域の台頭

朝鮮青銅器文化の時期区分には諸説あるが⁽⁵¹⁾、琵琶形銅剣以前、琵琶形銅剣期、細形銅剣期、退化形細形銅剣期の4期には異論がない。本稿では「出現期」「形成期」「発展期」「衰退期」と呼ぶ。異形青銅器および竿頭鈴において問題となったのは、異形青銅器B群（発展期）から異形青銅器C群（衰退期）へかけての分布域の変化であった。かつて岡内が明示し⁽⁵²⁾、李清圭が主題化した⁽⁵³⁾、衰退期には、中西部・西南部の青銅器が著しく衰え、東南部が興起する。発展期から衰退期へ移行する過程で生じた現象をまとめると、中西部・西南部地域の衰退現象には多鈕細文鏡の消滅、異形青銅器B群の消滅があり、東南部地域の興起には銅剣の非実用化および加飾化⁽⁵⁴⁾、有文銅矛・有文銅戈の出現、中国系文物の出現、鉄器の普及などがある。新出要素に特徴づけられる時期相のなかにあつて、竿頭鈴は連続性を把握できる数少ない要素である。竿頭鈴を手がかりに衰退期・東南部青銅器文化の特質を技術的側面から検討する。

2. 製作技法・生産体制からみた地域的盛衰の評価

朝鮮青銅器の製作技法については未解決の問題も少なくないが、おおよその特徴を抜き出して整理すると表2のようになる。器種と製法は基本的に対応している。多鈕細文鏡は挽型で成形・施文をおこなう。文様面に1～2mmの断層が認められるのは、規型を回転して整形した面と、文様を施文する肌砂層が剥離した結果であろう。多鈕細文鏡特有の范傷である。なお論山郡恩津面出土とされる細線文銅戈には細文鏡の製法が応用されている。未見につき断層の有無は不明である。また細文鏡C式の内区は八珠鈴や円形有文銅器のモチーフである。多鈕細文鏡と異形青銅器にはデザイン上の連絡がある。

表2 朝鮮青銅器の製作技法

石范	土范		
	挽型法	込型法（原型法）	
		合范	失蠟法
鑄型に施文	鑄型に施文	鑄型に施文 (貼り帯技法) 原型に施文	原型に施文 鑄型に施文
武器・工具 など	多鈕細文鏡	異形青銅器 異形銅矛	把頭飾 など
凸文	凸文	凸・凹文	凸・凹文

観察の結果によれば、異形青銅器は土製合范で製作される⁽⁵⁵⁾。異形青銅器の施文技法については岡内が多く観察結果を記している⁽⁵⁶⁾。注目すべきは列点文や斜線文を鑄型面の凸部に直接施文する方法である。全体として凹文を志向するなか凸文施文の原理を用いている。製品にみられる予期せぬ失敗はさらに具体的な施文方法を知らせてくれる。異形青銅器にはしばしば文様帯の部分的消滅や移動が認められる。文様が途絶えた部分は器面と同じレベルである。よって鑄型の凸部は崩れたのではなく剥がれたと分かる。つまり製品の凹文は施文過程において残された部分である。

施文過程を次のように理解する。まず無文の原型を用いて外型に外形を写し取る。器面を整え乾燥させたのち、厚さ1mm程度の帯を貼り付ける。凸文で表現する部分を刻み、凹文で表現する部分以外を剥ぎ取る（結果、仕上がった凹文は垂直に切れ込んだ状態となる）。鑄型焼成時に貼付部分が剥離、移動、固着する。補修の過程を経ずに鑄込みをおこなう。

以上の施文技法を「貼り帯技法」と呼んでおく。貼り帯技法は異形青銅器A・B群に共通してみられるが、C群にはみられない。竿頭鈴でみると、Ⅰ式は文様の一部剥落、凹文の切り込み状態など貼り帯技法による施文と理解してよい。しかしⅡ式は文様の縁線が揃わず、凹文の切り込みもなだらかなのである。原型への直接施文と判断する。またⅡa式の新川洞では鈴部孔を型持に使用せず鈴部孔間の身部で范を合わせている。技術的な継承性は低い。異形青銅器C群の錨形銅鈴は、写真をみる限りは原型に直接施文したようにみえる。凹文をもつ銅矛のなかには鑄型に凸文を施文した例が見受けられるが、貼り帯技法とは異なるよう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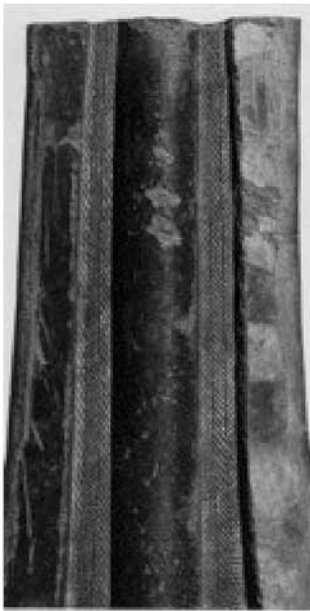


写真1 細線文銅戈



写真2 文様帯の剥落

みえる。今後資料を詳細に観察する必要があるが、異形青銅器C群および衰退期の東南部地方は貼り帯技法を用いていないと判断する。

以上を整理すると衰退期・東南部青銅器文化の特質は以下のように理解される。

多鈕細文鏡の最終段階の分布状況は製作中心地の意向による配布制限があった。東南部で多鈕鏡を製作した可能性はまずない。挽型と細線文は伝わっていない。

石范製作の青銅器は基本的に継承された。武器については機能退化した新型式が出現する。有文銅矛・有文銅戈が数多く製作されたが、石製鑄型に綾杉文や鋸歯文が刻まれた。細文鏡の技術がないため、細線文銅戈は出現しない。

異形青銅器B群は東南部にも伝わっている。異形青銅器C群はB群の延長線上にあるが、器種や技術の継承は限定されている。表裏面が対称形の器物が製作されるのみで、八珠鈴のような複雑な造形はおこなっていない。鈴器の形態もB群の延長線上だが、新たな器種が創出された。

失蠟法によって多種多様な把頭飾が製作され剣を飾った。鞘をふくめた剣の装飾過多傾向は青銅器武器の役割が変質したことの反映である。矛や戈も同様の傾向を示す。利器の変質は共伴遺物が示すように鉄器の出現に起因する。

3. 紀元前2世紀を転機とする細形銅剣文化の地域的盛衰

異形青銅器C群が属する衰退期は、副葬品中の中原文物によって楽浪郡設置以後と理解される。すると先行する異形青銅器B群は紀元前2世紀代およびそれ以前となる。

衰退期に先行する「発展期」は4時期に区分可能であり、発展1期〈多鈕鏡Ⅱ段階、異形青銅器A群〉、発展2期〈多鈕鏡Ⅲ段階、戈の出現〉、発展3期〈多鈕鏡Ⅳ・Ⅴ段階、異形青銅器B群〉、発展4期〈多鈕鏡Ⅴ段階、鉄器・ガラスの出現〉となる。

異形青銅器B群の出現は発展3期であるから、竿頭鈴Ⅰb式は発展4期となる。現行の時期区分によれば、異形青銅器の分布に変化が起こるのは副葬品に鑄造鉄器が加わる頃となる。衰退期になると中西部・西南部での青銅器製作は影を潜め、東南部地域での青銅器製作が活性化する。技術的断絶を考慮すれば、人的移動ではなく東南部地域の主体性が発揮された結果といえる。

また衰退期以降、東南部地域は西部地域（大同江・載寧江流域）との結びつきを強める。細形銅矛では両者共通の型式が出現し、楽浪郡に由来する車馬具や漢鏡が東南部にもたらされるようになる。同時に、弥生青銅器が副葬品に加わるようになり北部九州との結びつきも強まる。

以上の諸現象を結びつけると、鉄をめぐる新たな国際関係が構築されるなかで朝鮮南部の地域関係が変質したと理解できる。朝鮮南部に鉄器があらわれると従来の異形青銅器B群や多鈕細文鏡の威容は急速に衰え、異形青銅器B群の一部は東南部方向への動きをみせる。つづく時期には、多鈕細文鏡や異形青銅器B群が姿を消し、東南部地域で異形青銅器C群をはじめとする新たな青銅器文化が創出される。東南部では同時に鉄器が普及しはじめ、対外交流が著しく活性化する。それは即ち東南部地域が地域勢力として台頭する過程であり、「弁辰鉄」の前史と理解される。

資料の閲覧に際し、辰馬考古資料館・青木政幸氏、国立大邱博物館・張龍俊氏からご助力を賜りました。記して感謝いたします。

註

- (1) 宮里修 2001a「朝鮮半島の銅剣について」『古代』第109号 P.125-159 早稲田大学考古学会
- 宮里修 2001b「多鈕粗文鏡について」『史観』第144冊 P.65-84 早稲田大学史学会
- 宮里修 2007「朝鮮式細形銅剣の成立過程再考—東北アジア琵琶形銅剣の展開のなかで—」『アジア地域文化学叢書Ⅶ 中国シルクロードの変遷』P.164-192 雄山閣
- (2) 宇野隆夫 1977「多鈕鏡の検討」『史林』第60巻第1号 P.86-117 史学研究会
- 全榮來 1977「韓國青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多鈕鏡의 變遷을 中心으로—」『全北遺蹟調査報告』第7輯 P.4-85 全州市立博物館
- 岩永省三 1983「多鈕細文鏡再考」『文化財論叢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P.963-983 同朋舎出版
- (3) 甲元眞之 1990「多鈕鏡の再検討」『古文化談叢』第22集 P.17-45 九州古文化研究会
- 李健茂 1992「韓國의 青銅器文化」『韓國의 青銅器文化』P.126-142 汎友社
- 平吹豊 1999「多鈕細文鏡の検討」『國學院大學考古学資料館紀要』第15輯 P.44-62 國學院大學考古学資料館
- 李陽洙 2004「多鈕細文鏡으로 본 韓國과 日本」『嶺南考古学』第35号 P.37-57 嶺南考古学会
- (4) 前掲註3(甲元 1990)
- (5) 前掲註2(宇野 1977)
- (6) 前掲註2(全榮來 1977)
- (7) 前掲註1(宮里 2001b)
- (8) 岡内三眞 1983「朝鮮の異形有文青銅器の製作技術」『考古学雑誌』第69巻第2号 P.73-116 日本考古学会
- (9) 三船温尚・後藤直 2004「復元鑄造と出土遺物から考察する韓国青銅八珠鈴の鑄造方法」『高岡短期大学紀要』第19巻 P.181-202 高岡短期大学
- (10) 李健茂 1992「韓國青銅儀器의 研究—異形銅器를 中心으로—」『韓國考古学報』第28輯 P.131-216 韓國考古学会
- (11) 정철만 1996「장리 고인돌무덤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996년 제4호 P.10-1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12) 김용간・안영준 1986「함경남도, 량강도 일대에서 새로 알려진 청동기시대유물에 대한 고찰」『조선고고연구』1986년 제1호 P.24-29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13)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6『유적 발굴 보고 제1집 라진 초도 원시 유적 발굴 보고서』과학원
- (14) 서국태 1965「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고」『고고민속』1965년 제2호 P.35-45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15) 李殷昌 1968「大田槐亭洞 青銅器文化의 研究—石器・黒陶・青銅器・装身具의 結合文化를 中心으로—」『亜細亞研究』第XI卷第2卷 P.75-95 高麗大学校 亜細亞問題研究所
- (16) 池健吉 1978「礼山東西里石棺墓出土青銅一括遺物」『百濟研究』第9集 P.151-181 忠南大学校 百濟研究所
- (17) 韓炳三・李健茂 1977『南城里石棺墓』国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第10冊 国立中央博物館
- (18) 全榮來 1975『全北遺蹟調査報告』제5집 全州市立博物館
- (19) 韓炳三 1971「先史時代農耕文青銅器에 대하여」『考古美術』112号 考古美術史学会
- (20) 梅原考古資料2578。前掲註8(岡内 1983)
- (21) 李健茂 1984「伝 益山出土 円形有文青銅器」『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P.105-127 通川文化社
- (22) 趙由典 1984「全南和順青銅遺物一括出土遺物」『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P.67-103 通川文化社
- (23) 前掲註10

- (24) 国立光州博物館・全羅南道・咸平郡 1988『咸平草浦里遺蹟』国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第14冊
- (25) 前掲註10
- (26)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顕夫 1925『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書 第二冊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朝鮮總督府
- (27) 李健茂 1990「扶餘松里遺蹟出土一括遺物」『考古學誌』第2輯 P.23-67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28) 前掲註26
- (29) 韓炳三 1987「月城竹東里出土青銅一括遺物」『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考古篇—』P.103-120 一志社
- (30) 안영준 1983「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8. 함경남도에서 새로 알려진 고대유물」『고고학자료집』제6집 P.182-185 과학백화사
전출판사
- (31)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朝鮮古文化綜鑑』第1卷 養徳社
- (32) 尹容鎮 1980「考古・石像物篇」『慶尙北道文化財地表調査報告 (I) —大邱・達城・慶山・漆谷地区—』P.9-128 慶北大学
校博物館
- (33) 金元龍 1952「慶州 九政里 出土 金石併用期遺物에 대하여」『歷史學報』第1輯 P.3-14 歷史学会
- (34) 尹容鎮 1981「韓國青銅器文化研究—大邱坪里洞出土一括遺物檢討—」『韓國考古學報』第10・11合輯 P.1-22 韓國考古学会
- (35) 榎本杜人 1980「朝鮮發見小銅鐸の集成」『考古學』第7卷第6号 東京考古学会 (榎本 1980『朝鮮の考古學』同朋舎に再
録)
- (36) 前掲註26。榎本杜人 1934「平安南道大同郡龍岳面上里遺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博物館報』第6号 P.2-31 朝鮮總督府博物
館
- (37) 정찬영 1962「좁은 놋 단검 (세형 동검)의 형태와 그 변천」『문화유산』1962년 제3호 P.19-44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
소
- (38) 国立中央博物館 1992『韓國의 青銅器文化』汎友社
- (39) 박진욱 1974「함경남도 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고고학자료집』제4집 P.165-18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40) 前掲註10
- (41) 湖巖美術館 1997『湖巖美術館所藏 金東鉉蒐集文化財』三星文化財団
- (42) 前掲註8
- (43) 前掲註10
- (44) 前掲註9
- (45) 金鍾一 1994「韓國 中西部地域 青銅遺跡・遺物の 分布와 祭儀圈」『韓國史論』31 P.1-72 서울대학교人文大學國史學科
- (46) 前掲註10
- (47) 前掲註8
- (48) 前掲註10
- (49) 前掲註8
- (50) 前掲註10
- (51) 以下の文献ほか多数。
- 尹武炳 1972「韓國 青銅遺物の 研究」『白山學報』제12호 P.59-134 白山学会
- 後藤直 1982「朝鮮半島の青銅器と土器・石器」『古文化論集 森貞次郎博士古稀紀年論文集 上巻』P.243-296 同刊行会
- 後藤直 1985a「青銅器文化の系譜」森貞次郎編『稻と青銅と鉄』P.83-108 日本書籍
- 後藤直 1985b「朝鮮半島青銅器文化の地域性」『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論文集 考古編』P.127-149 平凡社
- 李清圭 1982「細形銅劍의 型式分類 및 變遷에 대하여」『韓國考古學報』第13輯 P.1-37 韓國考古学会
- 李清圭 1997「嶺南地方 青銅器文化의 展開」『嶺南考古學』第21号 P.29-77 嶺南考古学会
- 近藤喬一 1984「日・韓青銅器の諸問題」井上光貞ほか編『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2 倭国の形成と古墳文化』
P.246-309 学生社
- 近藤喬一 2000「東アジアの銅劍文化と向津具の銅劍」『山口県史—資料編 考古1—』P.709-794 山口県
- 岡内三眞 1989「朝鮮の青銅器文化」『季刊考古學』第27号 青銅器と弥生社会 P.79-84 雄山閣出版
- 下條信行 1991「青銅器文化と北部九州」『新版 古代の日本 第3巻 九州・沖縄』P.77-100 角川書店
- 前掲註3 (李健茂 1992)
- 朴淳發 1993「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한강유역사』P.115-223 민음사
- 広瀬和雄 1993「弥生時代首長のイデオロギー形成」『弥生文化博物館研究報告』第2集 P.1-35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 武末純一 2002「弥生文化と朝鮮半島の初期農耕文化」佐原真編『古代を考える—稲・金属・戦争：弥生—』P.105-138 吉川弘文館

趙鎮先 2005『細形銅剣文化의 研究』考古学叢書37 学研文化社

(52) 前掲註51 (岡内 1989)

(53) 前掲註51 (李清圭 1997)

(54) 前掲註1 (宮里 2001a)

(55) 岡内三眞 1980『朝鮮初期金属器の製作技術』『古代探叢—滝口宏先生古稀記念考古学論集—』P.623-644 早稲田大学出版部

岡内三眞 1984『東北アジアにおける青銅器の製作技術』『尹武炳博士回甲紀年論叢』P.623-654 通川文化社

後藤直 (代表) 2005『弥生時代青銅器鑄造に関する日韓比較による実見考古学的研究』北九州鋳金研究会

(56) 前掲註8